



12면

"계엄 상황에 충격...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음 11월 9일) 제3641호

대표전화 (063)288-9700

"윤석열 즉각 탄핵"... 구호 외치는 성난 도민들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전주시 객사 앞 도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 회피할 수 없을 것”

김관영 도지사,尹 탄핵안 불성립에
“대통령의 책임있는 결단 뒤따라야 할 것”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사진)가 지난 7일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된 것에 대해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기 어렵다”며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질서있는 퇴진을 언급한 만큼, 이대로는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있는 조기퇴진에 대한 국민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국의 긴장은 더 격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로서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전북자치도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전북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해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전주시 객사 앞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비상 촛불집회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했다. /이만호 기자

尹 탄핵안, 與 105명 불참에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95명에 그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0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상욱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는 5표가 부족했다.

국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투표
민주, 매주 탄핵안 추진 예고... “파바파바 추진할 것”
전북 전주 등 전국 곳곳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리면서 약 3시간 동안 투표를 했지만, 추가 인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한명씩 호명하면서 분회

의장에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장에 모여 대기했고,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반드시 내란 행

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파바파바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북 전주, 서울 여의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시민들은 윤석열 퇴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훈 기자

올 가을 전북, 가장 더웠다

전주기상지청 기후 분석
9~11월 평균기온은 17.0℃
높은 해수면 온도 등 주인

올해 전북 지역의 가을은 역대 최고로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7일 전주기상지청의 ‘올해 가을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가을철(9월~11월) 평균기온은 17.0도였다. 가을철 평년 기온인 14.1도보다 2.9도 높았다.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한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강수량 역시 356.7mm로 평년보다 104.7mm 많은 수치다. 역대 10위를 기록했다. 높은 기온으로 9월 폭염과 열대야도 지속됐다. 9월 폭염과 열대야일수는 8.9일, 3.3일로 2위인 2.0일, 1.1일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다. 장수에서는 1988년 기상관측 이래 처

음으로 9월에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고온으로 단풍과 서리 역시 평년보다 늦게 확인됐다. 내장산과 지리산의 첫 단풍은 10월 31일, 10월 25일 관측됐다. 이는 평년보다 11일, 14일 늦은 관측일이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른 시기도 평년에 비해 약 일주일 정도가 늦었다. 전주기상지청은 가을철 고온 현상에 대해 높은 해수면 온도, 필리핀 부근의 강화된 대류 활동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가을철 내내 국내 주변 해역을 포함한 북서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1~4도 높아져 대기 공기를 데우며 기온 상승 효과가 더해졌다고 전주기상지청은 분석했다. 또 필리핀 부근의 대류 활동 증가로 국내 중·하층에서 고기압이 발달해 이 고기압으로 인해 강한 햇빛이 내리쬐거나 따뜻한 남풍 바람이 불어온 것도 기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재훈 기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고창

고창군 GOCHANG COUNTY

고창음성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iosphere Reserve, Global Geopark, Memory of the World